

“금오스님 종가 모범 복지향상 위해 노력”

법주사 주지 정도스님 임명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접견실에서 제5교구본사 법주사 주지에 정도스님(사진)을 임명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정도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금오스님 종가에서 화합하고 소통하며 주지소임을 맡아주길 바란다”며 “주지로서 대중 스님들을 잘 보좌하는 것이 중요하데, 특히 어린 스님을 잘 모셔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도스님은 지난 7일 제5교구 산중총회에서 법주사 주지후보로 선출됐다. 정도스님은 이 자리서 “본사 주지 소임을 맡으면 문종의 화합과 승려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교구 본·말사 대중 스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지역불교의 발전과 함께 법주사를 빛내고 발전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임기는 오는 4월19일부터 4년. 법주사 신임 주지 정도스님은 탄성스님을 은사로 득도, 1976년과 1979년 각각 법주사와 범어사에서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중앙경찰학교 경승실장과 제14·15·16대 중앙총회의원, 충주 창통사 주지, 인사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종단발전과 지역포교에 앞장서 왔다. 하정은 기자 tomato77@ibulgyo.com



2030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박영숙 대표, 불교포럼서 강연

“2030년이 되면 현존하는 직업 20여개가 소멸되고 현존하는 일자리 또한 80%가 15년 내 사라진다고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세상은 빨리 변하고 있고 이런 변화 속에서 불교 특수성을 고려한 미래 전략을 세워야 한다.”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는 조계종 제가불가지도자 네트워크인 불교포럼이 지난 23일 서울 그랜드 엠버서더 호텔에서 연제18차 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미래사회 메가트렌드 2030년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한 박 대표는 이날 불교계도 친환경 태양열 에너지를 도입하는 등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표는 “태양에너지 등 새로운 에너지 산업을 통해 5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각광받고 있는 분야에 중단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미래 인류에게 기후 변화를 막는 것이 가장 큰 숙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주한영국대사관 및 주한호주대사관에서 30년 가까이 일했으며, 2004년부터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미래학 싱크탱크 밀레니엄프로젝트의 한국지부인 유엔미래포럼 대표를 맡고 있다. ‘유엔미래보고서’ 시리즈를 통해 수십 년 후 세계에 대한 다양한 예측을 소개해 온 미래학자로도 알려져 있다. 홍다영 기자

5년 단임 ‘추첨제’... 총무원장 선출제도 초안 확정

종단의 총무원장 선출방식을 ‘간선제’에서 ‘추첨제’로 바꾸는 총무원장선출법 초안이 마련됐다. 이 초안은 100인 대중공사의 논의를 거친 뒤 중앙총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조계종 총무원장선출제도혁신특별위원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6차 회의에서 총무원장선출제에 관한 법 제정안과 종헌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중앙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당초 제안했던 ‘엄화미소법’이라는 표현은 법안 명칭에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확정된 종헌 개정안과 총무원장선출법 제정안에 따르면, 500명 이내의 총무원장 추천인단이 3인의 후보자를 선출하고 이를 원로회의가 인준한 뒤 종정예하 추첨으로 총무원장을 최종

500인 이내로 추천인단 구성
1인2표 투표로 후보3인 추천
중정 추첨으로 총무원장 선출

특위, 대중공사 거쳐 종회제출

선출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 종정이 유고상황일 경우 원로회의 의장, 전계대화상 순으로 총무원장 선출권을 갖는다. 총무원장의 임기는 5년 단임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전체적인 선출과정은 후보자 등록, 갈마위원회, 종책토론회, 추천인단 투표, 원로회의 인준, 종정 추첨 등으로 구성됐다.

후보자는 중앙총회의장·호계원장·교육원장·포교원장을 역임하거나 교구본사 주지 4년 이상 재직 경력, 중앙총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2년 이상 재직 경력, 중앙총회의원 6년 이상 재직 경력, 각급 종정기관 위원장 역임 등에 해당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후보자 갈마위원회는 후보자 자격심사, 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독립기구로 재심호계위원, 초심호계위원, 법규위원, 법제위원, 계단위원, 선원, 율원, 강원, 중앙신도회 추천 재가자 등 각 1인씩 총9인으로 구성된다.

추천인단은 재임 중인 중앙총회의원과 법계 중덕(정덕) 이상의 승려로 각 교구종회에서 선출한 10인을 포함한 500인 이내로 구성된다.

추천인단 500명에 대한 상세한 배정원칙은 차기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추천인단은 선거에서 2명에게 투표할 수 있고, 총수의 20% 이상 유효투표자 중 다득표자 3인을 총무원장 후보자로 결정한다. 총무원장선출법 제정안은 이렇게 선출된 3명의 후보자에 대해 원로회의 인준, 종정 추첨으로 총무원장을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총무원장선출제도혁신특위가 마련한 이 안은 오는 31일 서울 불광사에서 열리는 100인 대중공사에서 하나의 방안으로 논의되며, 4월 중 권역별로 진행되는 지역 대중공사에서도 논의안건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bypark@ibulgyo.com



지난 2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법당 무량수전 신축불사 기공식에서 시삽을 하고 있는 주요 내빈들. 이곳에는 교회와 성당은 있지만 사찰은 없다.

“남북경색 해소 봄 소식되길”

군종교구, JSA 무량수전 기공

남북분단의 상징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평화통일을 발원하기 위한 도량이 마련된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지난 24일 공동경비구역 법당 무량수전 신축불사 기공식을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 주요 부대 군승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했다. 법당은 오는 10월 완공될 예정이다.

무량수전은 고려 정통목조전축물 양식으로 건립된다. 법당 82.32㎡(24.9평), 종각 9㎡(2.72평) 규모다. 국내에 현존하는 고려시대 양식 건축물인 예산 수덕사 대웅전과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을 참고해 조성한다. 내부에는 아미타 삼존불과 함께 한국전쟁 당시 참전 희생자들의 위패를 봉안해 통일을 염원한다. 불사 비용은 약 9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군종교구장 정우스님이 1억원을 기탁하고 군종교구 예산에서 2억원을 부담하며, 나머지 불사금은 모연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격려사에서 “최근 북한의 핵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하여 이곳 판문점과 가까운 개성공단의 전면가동 중단 등 남북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경색의 국면을 치닫고 있다”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남북통일의 염원을 담은 공동경비구역 신축법당 불사는 국민 모두에게 생명이 넘치는 봄소식으로 전해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군종교구장 정우스님은 인사말에서 “교회와 성당은 있지만 정식 법당이 없는 현상이 안타깝기 위 불사의 원력을 세웠다”며 “연간 16만명의 내외국인이 찾는 만큼 한국불교문화를 알리는 거점으로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우리 문화콘텐츠 제대로 지키자”

교구본사주지협 44차 회의
종단 표준계약서 이미 마련

한국불교에 대한 관심과 콘텐츠 개발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불교문화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의장 정법스님)는 지난 24일 고양 여래사에서 제44차 회의를 열고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총무원 문화부는 지난해 국내 한 인터넷 검색서비스 기업이 종단과 사찰에 불리한 조건으로 촬영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사찰에서 수집한 사진 등 모든 데이터의 저작권을 기업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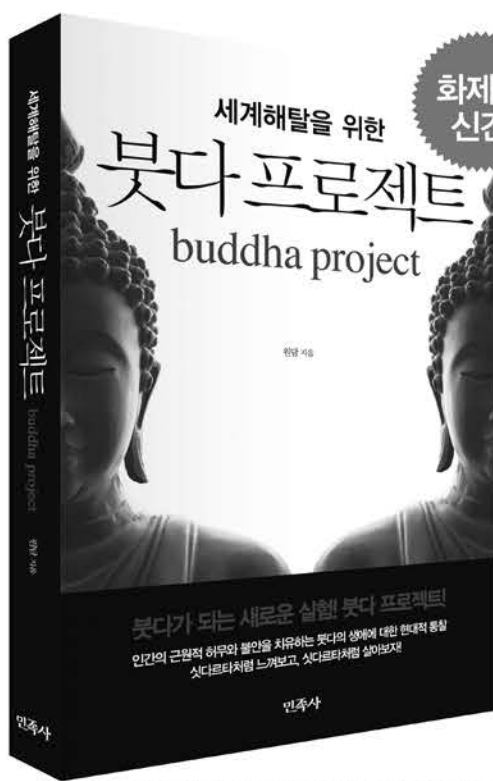
서만 갖게 하고 있어, 불공정 거래에 대한 종단 차원의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불교문화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 제작자들로부터 영화 등 동영상, 사진촬영 등의 협조 요청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불교문화진흥법에 근거해 종단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총무원에 계약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단은 2011년 불교문화진흥법 제정에 이어 2013년 불교문화콘텐츠 권리강화를 위한 매뉴얼 및 사례보고서를 발간해 사찰에 배포했다. 상황별 표준 계약서도 만들었다.

이에 대해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불교문화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교육을 요청했다. 해인총림 해인사 주지 항적스님은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사찰 총무원들이 제대로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화부장 정안스님은 “교육원과 연계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교육을 전국 사찰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다음 45차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오는 5월 26일 제16교구본사 교운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교양=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본·말사 주지 인사 (3월23일 중무회의)									
원명스님 합천 감로사	진상스님 서울 동인사	성화스님 구미 남화사	진우스님 대구 대성사	성일스님 청원 수선정사	무주스님 부산 안심사	지현스님 부산 마하사	동월스님 영주 성혈사	명인스님 의성 모선암	영호스님 가평 대원사



원당 지음 | 신국판 | 437쪽 | 값 18,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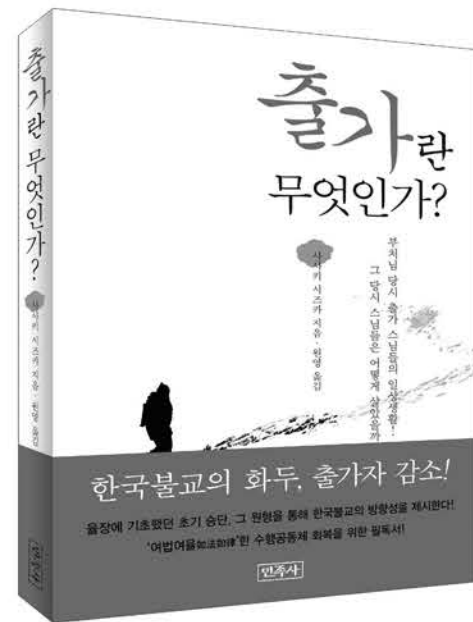
저자 원당 | 어린 시절,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그때 인간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 예수의 몸으로 오신 신에게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러다 신의 우주창조설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교회를 떠났다. 1977년 서울대학교에 입학하여 산업공학을 전공하다. 불교학행회에 가입한 후 사회과학 공부를 시작했다. 1980년 서울대 총불교학생회 회장에 당선. 5월 민주화 대행진에 적극적 참여했다. 광주민주화항쟁에 함께 하려 했지만 광주로 들어가지 못하고 고향에 은거했다. 그해 9월 대학생불교연합회(대불련) 의장 겸 회장으로 활동했다. 1983년 군 계대 후 송광사로 입산 출가. 이후 인도, 미얀마, 미국 등지를 돌며 수행에 정진하였다. 의성 수정사 주지를 거쳐 현재는 진주 도과선원(道果禪院) 선원장으로 붓다의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기에 힘쓰고 있으며, 불교와 인문학의 소통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지성의 확장을 꿈꾸며 시민연대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

붓다가 되는 새로운 실험! 붓다 프로젝트!

행복해지고 싶은가? 불안과 허무에서 벗어나고 싶은가?
깨달은 전사, 붓다의 생애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폭압적 권력 앞에서 방황하던 한 사람이 생의 의미를 되찾기까지.
붓다라는 등불을 통해 얻은 깨달음의 에센스이자
좌절과 원망, 허무와 불안 속에서 허우적대는 이 시대 모든 이들에게 건네는 희망의 메시지다.

붓다 시대의 스님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초기 승단의 생활상, 율장을 바탕으로 재현!
여법여율(如法如律)한 수행 공동체 회복을 위한 필독서!



출가란 무엇인가?

사사키 시즈카 지음, 원영 옮김 | 신국판 | 376쪽 | 값 15,000원